

광주전남-전북 대학RCY,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



대학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광주 북구 매곡동 양리타워홀에서 광주전남-전북 대학RCY 회원 및 직원들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광주전남-전북 대학RCY 교류활동으로 진행된 '대학RCY 전라는 하나지~! 한마음 체육대회'는 대학RCY 회원 간 프로그램 공유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대학 RCY 회원 23명과

전북 대학 RCY 회원 22명이 참석했으며, 1부 (피구, 판뒤집기, 달리기), 2부(발야구, 줄다리기, 계주)로 구성됐다.

노현민 대학적십자사광주전남협의회장은 "전북대학RCY 단원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교류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대 학생들,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 31명이 최근 광주 광산구 선동 대봉감 농장을 찾아 일손 돕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학생들은 대봉감 수확과 마을 환경정리, 어르신과의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번 일손 돕기 봉사활동은 광주대 호심 사회봉사단이 주관하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주최해 펼쳐졌으며, 농가 일손 부족 상황에서 재능기부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실시됐다. 광주대는 앞으로 지역 봉사 관련 협력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안혜원(아동학과·4) 학생회장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오스 문화기관 공동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라오스 문화부 및 국립박물관·도서관 관계자 등과 11일까지 ACC 문화정보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연구에서 ACC는 라오스 문화자원의 디지털 기록물 관리를 비롯해 활용, 콘텐츠 제작, 문화 교육 등과 관련한 원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라오스측은 자국의 문화자원과 문화유산 정책, 라오스 문화자원 디지털라이빙 센터 설치 계획 등을 소개했다.

라오스는 매국 5개국(대륙동남아의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 하나로 바다가 없는 유일한 동남아 국가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참파삭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 중심의 기록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박물관과 도서관의 문화자원관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문화자원은 훼손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CC는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9월 라오스 문화부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체결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한-라오스 공동연구가 라오스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ACC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라오스의 문화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G생활건강, 폭력피해 가구 지원 기부금 1000만원



LG생활건강은 최근 사회공헌 활동 '더불어캠페인'의 일환으로 폭력피해 가구 지원 기부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 적십자사는 지원금을 광주 YWCA 가정상담센터 12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산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이웃에 난방용품 전달



산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수영)는 최근 산수1동 돌봄 이웃 3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난방용품 탄소매트를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Broadcast Time,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10월 17일 丁卯)
36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만 갖지 말고 여러가지 방도를 고려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60년생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해야 한다. 72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4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룰 것이다. 96년생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18, 56
42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하자. 54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66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78년생 가다가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 90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02년생 반복 속에서 가다가 잡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86
43년생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55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해답을 얻는다. 6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79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91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미약하다. 03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행운의 숫자 : 19, 58
44년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 하더라도 지리멸렬하다면 미련을 버리도록 하자. 56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68년생 공을 들여라. 80년생 무가치하거나 비효율적이려면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92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04년생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4, 97
33년생 친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철하게 임한다. 55년생 주변의 사정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임하면 그만이다. 57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69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괜찮은 결과가 보인다. 81년생 상호적인 관계에 신경 써라. 93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4
34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이해도 된다. 46년생 방법만 달리한다 해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8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70년생 의무적으로 표현했을 때 크게 얻으리라. 82년생 짐작을 펼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94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64
35년생 대화로써 풀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47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59년생 끈질기게 밀어붙인다면 성취하리라. 71년생 물고기가 활연히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다. 83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95년생 기저에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3, 92